

도민 먹거리 안심 확보 위해 최선

전북도,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건강한 식생활 지원 확대키로

전북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식품, 건강한 전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식품위생분야 비전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시기별,업종별 집중 지도점검을 합동 및 자체기획 단속으로 22회 실시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며, 위해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수거·검사를 3,000건 실시해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회

수.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시설 예방 강화를 위해 ATP 기기를 활용한 식중독 사전진단 컨설팅 사업을 3,000개소 실시 할 계획이며, 노인·장애인·아동에게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특별 위생 지도교육을 이달 말 까지 추진한다.

또한 도내 식품접객영업자 2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식품정책을 안내하고, 영양사·조리사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과 예방법 등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

급을 부여·공개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을 적극 홍보 추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비를 7억원 편성해 융자 지원한다.

건강한 식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전북도내에 13개소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지속 운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지난해 1,313개소 4만5,000여명 보다 확대 지원해 어린이

의 건강한 식생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577개소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67명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박철용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먹거리 안전은 도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도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제조·유통·소비단계의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의 먹거리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관심은 일자리 창출 위해 '도정집중'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1차 보고회... 5대 추진방향 설정

전북도가 양질의 관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6일 진흥 정부부지사 주재로 각 실·국별 주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1차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실·국별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사업별 추진계획 점검,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창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의 고용률은 59.4%로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업자 수도 90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위축, 수출부진, 조선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각 추진방향별로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각 사업이 관심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유치 및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양질의 기업일자리 확대하고,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여성·장애인·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정3대 핵심정책이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별 주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진흥 정부부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모두 함께 매진하여 도민들의 행복이 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보고회를 토대로 3월 중순 송하진 지사 주재 일자리창출 협업토론회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을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도지사, 장수군 찾아 희망대화 진행

노인·장애인복지관 곤충사육 선도 농가 방문

송하진 지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일정으로 16일 두 번째 방문지로 장수군을 찾았다.

이날 장수군 방문에는 최홍득 장수군수, 양성민 도의원, 유기홍 장수군 의장 및 현장사업관계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

먼저,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송 지사는 지역사회 어르신과 어려운 여건에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김 진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노인·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살기 좋은 전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송 지사는 "도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 가족화사업과 돌봄 서비스 등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를 올해 설치했고 앞으로 도 단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복지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송 지사는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곤충사육농가인 '백만돌이 농원 장수군농원' 농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2017년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가 16일 장수군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지역사회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백만돌이 농원 장수군농원'은 표준화된 현대식 곤충 사육시설을 도입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으며 곤충사육 표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송 지사는 "전북의 곤충산업을 선도적으로 진흥시키고, 곤충이 새로운 소득창출 아이템이라는 것을 지역 농민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면서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만큼 성공의 결실을 꼭 맺어 달라"고 말했다.

백만돌이농원 나만수 대표도 "곤충이 인류의 미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면서, "전북 단일 브랜드로 효율적인 공동구매, 공동판매망을 구축해 곤충산업이 튼튼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곤충사육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곤충관련 상품개발 및 곤충산업 규제 개선으로 곤충시장 확대와 식품원료 등록 등을 이루어 미래 신 성장 농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진흥 정부부지사,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간담회

진흥 정부부지사는 16일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 육성책 마련을 위해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성장가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 2010년 전북도에서 발굴·추진한 사업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사업이다.

그동안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매년 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최근 5년간 기업 매출액이 6.3% 증가했다. 이는 전국평균 3.3%, 전북기업

평균 2.8%보다 높은 성장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 선도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16건), 현장 애로 기술해결(25건), 마케팅(45건), 컨설팅(10건)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45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전북도에서 발굴해 추진한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기업운영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고, 가뜰이나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 맥락을 같이 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다중이용 건물 민방위 경보체계 구축 지도

전북도는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별 경보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철도역,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시설 준비기간을 감안해 설치 기한을 3년간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전북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전화, 이동전화(문자 또는 음성)로 전달받아 건물 내에 신속하게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 해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의무대상 건축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지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